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312호)

마이다스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0년 07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0-26
펀드 규모	23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2%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7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2.09%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2.80% 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낮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IT, 자동차가 부진한 성과를 보인 반면, 주가대비 평가 매력도가 낮아 편입비중을 시장대비 낮게 유지하였던 조선,철강,건설,기계,유통 업종이 지난 한달간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별로는 시장 대비 편입비중이 높았던 하이닉스,대한항공, 오리온 등이 연초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였으나, 7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참고지표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시황

지난 한 달간 종합주가지수는 6월에 이어 3.6%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이유를 요약해보면, 첫째 기업실적측면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수출관련 업종과 항공, 해운, 철강 등 시가총액 구성 주요 상위종목군의 견조한 실적과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철강, 유통, 서비스, 금융, 화학, 전기가스, 보험, 기계, 운수장비, 은행 등 업종이 상대성과가 양호하였고, 운수창고, 제약, 통신, 전기전자, 종이목재, 음식료, 섬유의복, 건설과 같은 종목군의 상대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종목 선택

지난달은 GS,NHN,POSCO,강원랜드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제일모직,신세계,다음,LG이노텍 등을 순 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우리투자증권,대우증권,LG화학,SK에너지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하이닉스,대한항공, 오리온,엔씨소프트,KT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30.0에 매도 하였으며 7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20.78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8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32.5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여 7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평가 손실을 보고 있으나 8월 만기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옵티멈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11%	1.11%	9.01%	17.33%	221.50%
참고지표	2.80%	1.07%	7.97%	11.01%	180.95%
초과수익률	-0.68%	0.04%	1.04%	6.32%	4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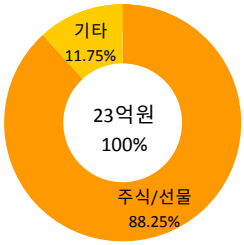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0.25~2010.07.30)

포트폴리오 현황

[2010.07.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0.05.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7.38%)

삼성전자	12.34
현대차	4.36
POSCO	3.05
LG화학	3.02
KB금융	2.92
하이닉스	2.84
기아차	2.37
현대중공업	2.30
SK에너지	2.12
한국전력	2.05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